



### 농촌포교 호기 놓치지 말자

농촌지역 불교가 죽고 있다. 농촌은 인구의 약 35%가 노인이다. 소수의 젊은 귀농인들이 미래를 꿈꿔 보지만 심각해진 주민노령화로 농촌은 현재 활기를 잃어 가고 있다.

깊은 산중에 위치한 사찰은 아침, 저녁으로 생활의 여유가 없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음을 내서 찾아가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은 가까운 교회를 통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 농촌의 정서는 불교와 가장 가까우므로 스님들의 적극적인 포교는, 그들에게 불행을 만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된다.

어린을 위한 문화의 장을 만들어 준다면 생활 속에 불교를 접하게 되는 최고의 포교가 될 것이다.

앞으로 사회의 화두가 될 '5도 2촌' 문제를 겨냥해 볼 때, 이러한 지역 문화의 공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5일은 도시에서 열심히 일하고, 2일은 경치 좋고 공기 맑은 농촌에서 생활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각 지역의 사찰은 보다 유익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도 최근 불교 있는 웰빙 바람을 농촌지역 정서와 연결해 다양한 포교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스님들이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와 간절함이 없으면 이루어지기 힘들다. 농촌 포교를 위해서는 깊은 산중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해야 한다. 지역민과 더불어 가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포교의 대들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농촌 포교뿐 아니라 교도소, 군 포교 등 소외된 여러 지역의 포교도 마찬가지이다.

### 주5일 근무·웰빙바람 등 변화 포교 프로그램으로 활용해야

은 역할을 하는 것도 불교의 친근함을 더해주는 일이다. 도란도란 노인정에 앉아 부처님의 일대기를 옛날이야기처럼 풀어주는 것도 근기에 따른 포교의 방법이 될 것이며, 문화사각 지대에 있는 소수의 귀농 젊은이들을 위해서 영화 관람의 기회를 마련하는 것도 농촌포교의 한 방법이다.

귀농한 일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전문불교를 만들어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농촌의 폐교를 이용하여 지역사찰들이 서로 연계하여 농

촌 포교뿐 아니라 교도소, 군 포교 등 소외된 여러 지역의 포교도 마찬가지이다.

소외된 지역을 위한 바람직한 포교를 위해서는 각 지역 스님들의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소외된 주변을 돌아보는 자세는 종교의 참 모습이다. 농촌 노인들이 소외된 삶을 살지 않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불교가 앞장서야 할 때이다.

■ 지현 스님(문화정령사 주지)

##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전문' 옷 입고 출범

### 조계종, 템플스테이·정보화 등 통합 디지털 콘텐츠 개발 등 시너지 기대

조계종이 불교문화사업 및 자원을 개발·육성하며, 불교문화 체험기회를 널리 제공하고, 불교 문화 대중화와 생활화의 실용적 기반을 확대 구축하기 위해 '한국 불교문화사업단(이하 문화사업단)'을 출범시켰다.

문화사업단은 전통불교문화산 업지원센터와 한국불교정보화사업단, 템플스테이사업단을 하나의 조직으로 통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사업에 대한 신사고 창출, 정부나 기타 사업체와의 교섭력 강화, 유사사업 중복투자방지, 재정적 독립을 위한

수익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7월 15일 문화사업단 단장에 현교 스님, 사무국장장에 주경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이에 앞서 13일 개최된 총무원회에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설치 및 운영에관한령'을 통과시킴에 따라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총무원장 직속기구로 설치된 문화사업단은 불교문화시설 건립과 프로그램 및 문화상품의 개발과 보급, 사찰체험사업, 불교문화 정보화사업, 기타 목적달성을 위한 수익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설



조계종 총무원장 법상 스님이 현교 스님(사진 왼쪽)에게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임명장을 주고 있다.

정했다.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한국불교간학선체협센터 건립, 간학선 수련체협 프로그램 개발, 사찰체험 및 수련프로그램 계획과 개발, 전통사찰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불교문화 디지털 콘텐츠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할 계획이다.

문화사업단은 심의 및 의결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운영위원회는 단장, 총무원 각원 부서 부·실장, 교육원 교육부장, 포교원 포교부장, 기획실, 재무부,

문화부, 교육원, 포교원의 부서장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총무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는다. 단장은 총무원장이 직접 임명하며 사업단의 경영전반을 관리감독한다.

문화사업단 단장 현교 스님은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불교문화사업들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구성됨으로써 재원확보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게 됐다"며 "한국불교문화사업 유·무형 자원들을 시대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내적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 이달의 문화인물 후보 문광부서 추천분야

문화관광부가 2005년도 '이달의 문화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전국 각 시·군·구를 통해 7월 23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이달의 문화인물'은 우리나라 역사상 위대한 문화적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는 제도다.

'이달의 문화인물' 추천대상은 문학, 미술, 음악 등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큰 업적을 남기고, 국민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서 선양(기념)사업 추진이 가능해야 한다.

문광부는 "특히 여성의 문화적 역량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조명을 위해 '여성' 문화인물을 집중 발굴, 추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 승적 정정 재요청

#### 98년시대 관련 스님들

조계종 1998년 종단사태 관련자인 정우·원학·현소·성문 스님 등이 승적 정정(복직)을 다시 요청했다.

스님들은 7월 13일 총무원으로 발송한 '승적 정정(복직) 재요청서'에서 "지난 5월 12일자 조·재심 합동심사 속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승적정정 요청서를 발송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회신 없이 재추구 요청서를 보낸다"며 "빠른 시일 내에 승적 정정 조치가 이행될 수 있기를 재차 간절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스님들은 2003년 7월 '특별법에 의해 심사를 속개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규위원회 판결을 근거로 지난 5월 승적정정을 총무원에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 본사사령

오윤희  
위촉 편집국 편집위원  
2004년 7월 12일

## 교비 환수 조치에 이의신청

### 14일 동국대 이사회

학교법인 동국대(이사장 현해)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육부의 교비환수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청서를 7월 1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동국대는 이날 오전 동국대 교무실에서 제201차 이사회를 열고 교육부 조치에 대한 재단 측의 이의신청 내용을 심의·의결했다.

법무법인 '지성'과 '길상'에 법률자문을 얻어 작성된 이의신청서는 '의·한의대부속 일신불교

병원'이 사립학교법이 인정하는 교육기관으로, 교비사용이 가능한 의과대 학생들의 교육시설이라는 점과 교육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던 2002년 이전에 발생한 '입법 미비'의 결과라는 사실을 들어 교육부의 교비 환수 조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교육부가 동국대에 8월 15일까지 환수를 요구한 교비전용 금액은 교비회계 418억 5800만원, 사학진흥재단차입금 68억 4000만원 등 총 486억 9800만원이다.

조용수 기자

## 2기 조계종 환경위원회 '시동'

### 위원장에 지원 스님

사찰 수행환경 보전과 불사에 대한 연구 조사 사업과 정책 수립 등을 담당할 제2기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7월 13일부터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환경위원회는 위원장에 총무원 사회부장 지원 스님, 위원에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 해인사 원당암 진각 스님, 밀양대 이병인 교수 등 20여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생태, 문화·조경, 도시계획, 환경법, 시민단체 등 환경관련 7개 분야에 걸쳐 18명의 전문위원도 위촉했다.

환경위원회는 앞으로 불교환경

강유신 기자

### 조계종 총회의원 연수 8월24일부터 3차례

2004년 조계종 중앙총회의원 주례별 연수회가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열린다.

중앙총회 고유기능인 입법기능과 집행부에 대한 정책감시 기능, 예결산 심사 기능 강화 등을 위해 열리는 주례별 연수회는 13대 중앙총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24일에는 '종법 입법 및 심사', 25일에는 '예산·결산 심사', 26일에는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주제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각각 열린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물'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야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 조계종 행자교육원 9월 송광사서

### 행자 206명 입교

조계종 교육원(원장 최화)은 7월 12일 행자교육원 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제 27기 행자교육원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순천 송광사에 개설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원은 행자교육원 유나에 지원 스님(송광을

원장), 습의도감에 정원 스님과 운운 스님을 각각 위촉했다. 또 행자 습의에 앞서 8월 30-31일 양일간 송광사에서 습의예행회를 갖기로 했다.

한편 이번 행자교육에는 남행자 119명, 여행자 87명 등 총 206명의 행자가 참가한다.

조용수 기자

# 성명서

서울시장 이명박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서울 시민과 전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

한국불교승가회 중앙회는 7월 14일 남가섭사에서 정기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이명박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망언을 한데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 촉구한다.

1. 서울시장 이명박은 교통난과 각종 물가 인상 등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서울 시민들을 무시한 채 본분을 망각하고 시장이란 직권을 남용하여 개인적으로 믿는 종교를 승화 시키기 위해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 한다」는 망발을 한데 대해 서울시민과 전 국민 앞에 즉각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2. 서울시장 이명박은 다 종교 사회임을 망각한 채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사고방식으로 종교간의 갈등과 국민 분열을 선동한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즉각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3. 서울시장 이명박은 본분을 망각한 채 직권을 남용하여 스스로 초 헌법적인 종교행위를 한데 대해 전 국민에게 즉각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만일 이명박 서울시장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초 헌법적인 사상으로 편향적 종교행위를 하고 공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민과 전 국민에게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하지 않는다면 우리 한국불교승가회 전 대중들은 범불교도 및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이명박 서울시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을 경고한다.

## 한국불교승가회 중앙회 회장 백설은